

## News

### 신한금융, 대출만기·이자유예 연장 금융사 첫 공식화

파이낸셜뉴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사진)이 사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에 선제적으로 참여를 공식화  
5대 금융그룹 중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연장을 공식적으로 찬성한 것은 신한금융이 처음

### BNK지주, 내부등급법 도입 '올 상반기' 전망

더벨

BNK금융지주의 목표대로 올 상반기 내부등급법이 적용되면 지주 자본비율이 많게는 200bp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 이는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내부등급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책정할 경우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등급법보다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도 얻게 돼

### 은성수, 한국씨티은행 철수설 놓고 "외국계은행 끌어들이길 방안 검토"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자산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  
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외국계금융사의 이탈만 있었을 뿐 유입이 없었다는 지적을 인정

### 빚투 열풍에 시중은행 올상...파킹통장 10兆 엑소더스

데일리안

지난 달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들의 MMDA 잔액은 총 108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말(116조6679억원)보다 8.3%(8조5188억원) 감소  
이처럼 MMDA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금 이탈의 배경에는 증시 호황으로 인한 무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마진콜' 악몽 떠올린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ELS 점검 지시

조선비즈

장 사장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ELS 마진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임원들에게 제시  
이에 따라 부서별로 해외 시장에 투자한 각종 금융상품들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스트레스 테스트 형식으로 분석할 계획

### 거래내역·대출잔액 정보 제공...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시

뉴시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선불발행정보·거래내역·주문내역정보 등으로 제한  
또 은행을 포함한 여·수신업권은 예·적금과 대출잔액, 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

### 정희수 생보협회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수위 조절해 재추진"

아이뉴스24

정 회장은 국민 편익 차원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은 의료계의 반발이 따르고 있다고 한 뒤,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한번 소통하고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고 언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올해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예고... "50% 이상 인상 속출 전망"

연합뉴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7년, 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으로 5년 누적 인상률은 53~58%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실손보험 갱신 가입자는 5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일부 고령층은 인상폭이 100%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해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